

일본의 양계소식

산란계

□ 계란의 Traceability System을 사업모델화

농협 중앙계란센터에서는 이번에 계란의 Traceability(일본한자어: 追跡可能性, 우리말로로는 이력관리로 표현하기도 함)를 행할 수 있는 「계란관리시스템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여 사업모델 특허를 신청하였다.

소비자의 식품에 관한 최대의 관심사는「안전」「안심」이기 때문에 농협중앙센터는 소비자에게 「안전」「안심」할 수 있는 계란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부터 포장까지 이르는 계란상품 이력의 추적·정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계란의 상품제조는 ① 종계·부화, ② 육추·육성, ③ 산란계농장, ④ 세란·선란·포장(GP센터)의 과정으로 나뉘어 있어, 각각의 경영주체가 다르고 분업화되어 있어 Traceability System을 운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특허를 신청한 「계란의 관리시스템 및 관리방법」에서는 산란계농장의 「집란장치」와 GP센터에 있는 「계란자동선별포장기」「인쇄장치」를 연결시켜 계란 Traceability Program, 상품에 인쇄한 「기호」에 의하여 어느 계사의 계란을 사용하여 포장하였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계사의 닭에 관한 ① 부화장, ② 육추·육성장, ③ 산란계 농장에서의 검사정보를 이 「기호」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생산이력정보로서 표시하기 위하여 시스템·자재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센터에서는 이후 같은 모델을 사용한 현장에서의 Traceability System을 검토하고 싶다고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초미립자분무산포기 개량 신발매-도시농기(土佐農機)

(주)도시농기는 종래의 초미립자분무산포기 「포그젯트」에 엔진두개를 달아 계사소독용으로 개량한 「포그젯트·트윈엔진」을 발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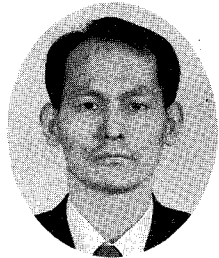
(주)도시농기는 농약 산포의 시간단축과 산포효율의 향상을 완성시킨 「포그젯트」을 발매하여 하우스 농가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나, 계사소독에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함에 따라 넓은 계사용으로, 엔진 두개를 장착하여 1분에 1L의 단시간 약제산포를 실현하였다.

주요특징은 ① 산포시간의 단축과 산포효율의 비약적인 향상, ② 3마이크론의 초미립자 약제가 계사를 채우므로 빈곳 없이 소독 가능, ③ 시동방식은 자동에어펌프 내장의 밧데리 방식으로 간단하게 시동된다, ④ 표준장비를 송압기케이블로부터 외부단자에 꽂으면 차의 밧데리(12볼트)로부터 간단하게 시동된다. ⑤ 부속품을 사용하면 보통탱크로부터 분무가능, ⑥ 전용운반수레(별도판매: 1만2천엔) 준비 등이다. 현금판매가격은 23만엔(230만원)이며 도시농기에서는 원하는 농가에게 시연용「포그젯트」와 시연비디오를 빌려주기도 한다(계명신문 발췌).

표.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 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 격	133	135	123	113	108	48	1,980t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육 계

□ 최신설비, 최대능력을 갖춘 부화장 완성 - 켄·코포레이션과 바이오서일본

(주)켄·코포레이션과 (주)바이오서일본은 효고썬(兵庫縣)의 후쿠자끼(福崎)기업단지에서 건설중이던 “켄·코포레이션 후쿠자끼(福崎)부화장”을 완성하여 지난 5월28일과 29일에 관계자를 초청하여 준공기념식과 축하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첫번째 날인 28일에는 지역관계자와 전국의 종계부화장 대표자 약 250명이 출석하여 준공 피로연에 앞서 건물내부 등을 견학하였고, 두번째 날인 29일에는 산란계 생산자 등 250명이 출석하였다.

「세계최고수준」의 기술과 신뢰의 후쿠자끼부화장은 약 6천평의 대지를 포함하여 투자금「약 15억엔(150억원)」을 들여 약 1,400평의 건물로 조성되었다.

도입된 설비·기술은 ① 공기유동 및 조절과 위생면에서 뛰어난 칩마스터사의 최신형 단층기 채용, ② 미국 HIS사의 우수한 노하우로 설계되어 높은 안전성과 효율을 자랑하는 공간 시스템을 채용, ③ 환기를 위해 실내로 혼입되는 모든 공기는 강력 자외선에 의한 살균을 실시하고 2중 필터를 통과, ④ 습도조절에 사용되는 모든 물은 역침수막여과 시스템을 사용하여 세균 등을 제거하여 사용, ⑤ 실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반드시 입장 전 샤워실시, ⑥ 장내로 반입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훈증소독을 실시, ⑦ 입장자동록 시스템과 효과적인 울타리 설치로 안전을 확보하여 입장자의 엄격한 관리 등이 특징이다. 년간 병아리 생산능력은 1,600만수이지만 1,200만수를 출하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태국산 계육에서 설파퀴노키사린 검출

후생노동성은 7월7일 동경검역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검사에서 태국산계육에서 설파퀴노키사린이 0.12ppm 검출되어 앞으로는 수입물량의 50%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도록 각 검역소에 연락하였다. 현재, 잔류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 동물성의약품은 26개 품목(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13개, 규제중인구제약(驅除藥) 11개, 호르몬제 2개)으로 설파퀴노키사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검출(잔류되지 않을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두번째로 다시 검출되면 모니터링 검사에서 「명령검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계명신문 발췌).

□ 일본 닭고기 발전 과제

7월의 일본산 육계의 출하는 전년보다 2.3% 증가하였고 수입물량은 중국산의 수입중지로 브라질 태국 등에서 증가하였다. 수요면에서는 가공원료의 구매가 예상되며 그 중에서 꼬치 등 계절수요를 제외하면 커다란 움직임은 기대할 수 없고, 특히 넓적다리 신선육의 수요가 적어 과잉의 염려가 있다. 가격회복의 재료가 부족하여 시황은 약세가(넓적다리 490엔 다리 205엔) 예상되며, 수급정세의 호전을 위해서는 일본산 육계의 생산억제가 필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국산닭고기」 발전을 위하여 일본식조협회 이치마(井島)회장이 밝힌 대책은 다음과 같다.

닭고기는 작년까지의 호조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생산비를 대폭 하회하는 가격이 계속되고 있어 일본산 닭고기는 다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산 닭고기의 안정된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① 올바른 표시의 철저로 소비자의 신뢰회복, ② 생산과잉에 의한 수급개선과 소비확대, ③ 확대되는 수입품에 대한 대응조치, ④ 태국의 관세율인하요청에 대응 등이다(계명신문 발췌).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